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09-345호)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신탁 C호(주식)

2009년 11월

Fund F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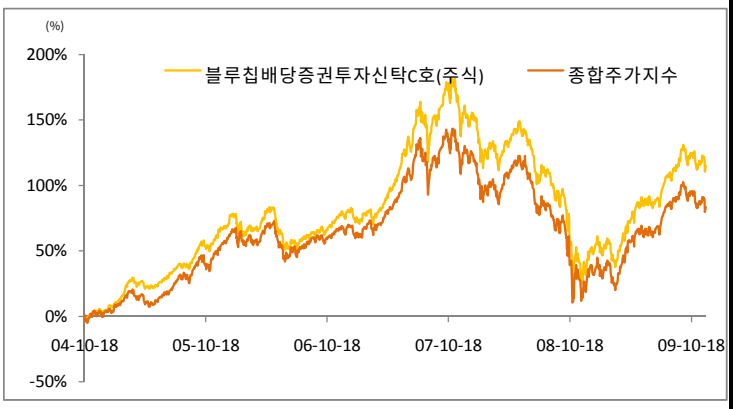
투자 목적	자산의 90%이상을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중 고배당 종목 위주로 투자하여 주가상승 이익과 배당이익을 함께 추구합니다. 보조전략으로 커버드콜전략의 실행을 통한 콜옵션 매도 수입의 축적으로 주가하락 위험을 일부 헤지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운용개시일	2004-10-19
펀드 규모	3,204 억원
총보수	선취판매수수료1%+신탁보수 연1.7%
환매수수료	없음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블루칩배당증권투자신탁C호(주식)	-0.88%	1.84%	14.54%	51.76%	115.06%
종합주가지수	-1.59%	-2.28%	11.44%	44.56%	81.78%
초과수익률	0.71%	4.12%	3.09%	7.20%	33.28%

수익률 추이

(2004.10.19~2009.11.30)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1월 한 달간 펀드수익률은 -0.88%였으며, 동 기간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은 -1.59%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성장성을 겸비한 내수 우량주와, 건설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 등의 주식편입비중이 높았고, IT,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종목별로는 효성, 오리온, 제일모직, LG디스플레이, POSCO, 대한항공등과 같은 보유주식의 주가흐름이 양호했고, 반면에 녹십자, 현대해상, 우리금융, 현대차, LG전자 등은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황

지난 11월 주식시장은 전강후약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10월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각국의 출구 전략이 연내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및 내년 실적 전망 대비 현 주가가 저평가 되었다는 인식 하에 주식시장은 월초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가 1,630p까지 상승한 이후부터 주식시장은 등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금융이 장내 블록딜(Block Deal)을 통하여 주식시장에서 자금 8,000억 이상을 흡수하고, SK C&C, GKL등 대형 종목의 IPO 등 공급측면에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주가 변동의 원인 중에 하나로 파악됩니다. 특히 월말 예측되지 않았던 중동의 두바이 채무 불이행 관련 뉴스는 단기간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금융과 건설업종 위주로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1,555p에서 마감 되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종합주가지수 1,600p 이상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업종별 성과로는 음식료, 화학, 철강, 유통, 건설, 운수창고업종 등이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기록하였고, 의약, 기계, 운수장비, 전기가스, 통신, 보험업종은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펀드에서 현물주식은 95% 내외의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보유분의 80% 내외를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중 고배당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보유분의 나머지 부분은 중소형 고배당종목 중에서 엄선한 마이다스고배당주로 구성됩니다.

①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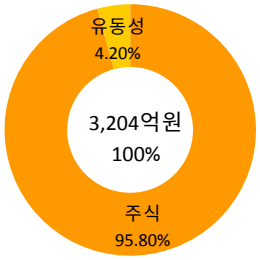
블루칩 배당포트폴리오 중에는 효성, LG디스플레이, POSCO, 한화, 롯데쇼핑, 대한항공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현대차,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SDI, 삼성물산 등의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지난달은 대림산업, 현대백화점, 효성, SK에너지, 롯데쇼핑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현대차, 외환은행, 신한지주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② 마이다스고배당주

마이다스고배당주 중에는 오리온, LG패션, CJ, 제일모직, CJ제일제당, 케이피케미칼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녹십자, 코리안리, 현대해상, 진로 등의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지난달은 진로, 녹십자, LG상사, 메리츠화재 등을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동부화재, 한진중공업, 한미약품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09.11.30 기준]



상위보유종목

[2009.09.30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64.34%)

1. 삼성전자
2. POSCO
3. KB금융
4. 현대차
5. 신한지주
6. LG화학
7. LG전자우
8. KT
9. 한국전력
10. 현대모비스
11. SK텔레콤
12. SK에너지
13. 삼성테크윈
14. 현대건설
15. S-Oil우
16. 외환은행
17. 현대해상
18. 삼성엔지니어링
19. 현대제철
20. LG상사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